

## 목차

###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하마르티아의 사전적 정의

### 2. 비극의 정의

#### 2.1 아리스토텔레스와 하마르티아

#### 2.2 아리스토텔레스와 카타르시스

### 3. 오이디푸스에 나타난 하마르티아

#### 3.1 성격적 결함

#### 3.2 운명의 힘

#### 3.3 인간의 무지

### 4. 결론

# 오이디푸스에 나타난 하마르티아

카타르시스를 중심으로

2013\*\*\*\*\* 신소현

## 1. 서론

### 1.1 연구목적

하마르티아는 서양 비극 작품에서 비극을 비극답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요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서양 비극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오이디푸스에서 하마르티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찾아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이론을 중심으로 어떤 관점이 하마르티아에 가장 잘 부합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 1.2 하마르티아의 사전적 정의

네이버 지식백과에 등재된 두 가지 정의 중 첫 번째 정의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비극의 주인공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야 한다. 반면 희극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보다 못해야 한다. 그러나 비극의 주인공은 그가 고결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함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하마르티아는 '과오', '약점', '비극적 결함'이라고 번역된다.<sup>1)</sup> 두 번째 정의에 의하면 행운의 여신의 총애를 받아 남들보다 뛰어난 비극의 주인공이 지닌 선천적인 결함 또는 단점을 말한다. 원래는 '잘못을 저지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hamartanein에서 유래했으며 tragic flaw라고도 한다.<sup>2)</sup> 두 가지 정의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마르티아를 주인공이 갖고 있는 결함으로 보았다. 특히 '과오'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잘못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인공이 지닌 내적 결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를 확장시켜보았을 때 과연 하마르티아가 과연 등장인물의 성격적, 도덕적 결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가?

## 2. 비극의 정의

### 2.1 아리스토텔레스와 하마르티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좋은 비극은 훌륭한 플롯을 가져야하고 훌륭한 플롯은 관객이나 청중에게 공포나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주인공의 행동의 변화, 즉 주인공의 운명을 예기치 않게 반대로 끌고 가는 급전이나 혹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비극은 청중들에게 연민이나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비극의 주인공은 유덕한자도 악한 자도 극악한 자도 아닌 그 중간에 위치한 보통 사람이거나, 혹은 그 보다 조금 나은 인물이면서, 행복에서 불행으로 급전을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무지에서 깨달음을 접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 13장에서 주인공이 행복에서 불행으로 반전되는 원인과 관련하여 “하마르티아”를 처음 사용한다.

“주인공이 덕과 정의에 있어서 탁월하지 않으나 악덕과 비행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하마르티아

1) [네이버 지식백과] 하마르티아 [Hamartia]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국학자료원)

2) [네이버 지식백과] 하마르티아 [hamartia] (Basic 고교생을 위한 문학 용어사전, 2006. 11. 5)

때문에 불행을 당한 인물이 그러한 인물인데.... 주인공의 운명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고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그 원인은 비행에 있어서는 안 되고 중대한 하마르티아가 있어야 한다.”<sup>3)</sup>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도 하마르티아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마르티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한마디로 나타내면 비극이란 주인공이 하마르티아를 통해 반전을 맞이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카타르시스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2.2 아리스토텔레스와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란 간단히 말해서 비극을 봄으로써 느끼는 두려움과 연민의 감정을 정확하고 배설하는 작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제 2편, 5장에서 두려움이란 무엇이 되었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의해서 유발된다고 말한다. 또 8장에서 연민이란 타인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또 우리 자신이 당할 가능성도 있는 어떤 파괴력과 고통을 수반하는 악을 우리가 목격하였을 때 발생하는 고통의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부당한 불행을 겪는 타인의 두려움은 우리의 연민을 자아내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닥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자신의 입장에서 연민은 타자의 입장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여기서 역설적인 사실은 고통이 쾌감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비극의 카타르시스 효과는 관객이 느끼는 걱정을 순화하는 것이며, 고통을 쾌감으로 대체함으로써 고통을 정확하는 것이다.<sup>4)</sup>

## 3. 오이디푸스에 나타난 하마르티아

### 3.1 성격적 결함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비극 작품으로부터 시학의 하마르티아 개념을 밝히려고 한다. 특히 비극의 정의에 따라 하마르티아를 카타르시스 개념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가장 먼저 이 보고서의 가장 주된 관점인 성격적 결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극의 원인을 결함으로 보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플롯 구성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극은 악인에게 벌을 주는 인과응보적인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잘못을 저지른 대가로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생의 불행이 우연이 아닌 필연의 법칙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연으로 보이는 변화도 거슬러 올라가면 필연성을 지닌다. 인과의 뜻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과보를 받는 일이고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말로 흔히 짚값을 치른다는 개념을 나타낸다.<sup>5)</sup>

**오이디푸스: 계속 나아가 그 세 갈래 길 가까이 다다랐을 때, 거기서 조랑말이 끄는 사륜마차 위에 탄 사내와 마주쳤소. 그러자 그 길잡이와 더 나이든 사람이 나를 강제로 길에서 몰아내려 했소. 그래서 나는 화가 나서 그 밀쳐 대는 자를, 마차 몰이꾼을 때렸소... 단번에 내 손의 지팡이에 맞아 마차 가운데서 곧장 고꾸라지며 굴러 떨어지게 되었소, 그리고 나는 그들을 모두 죽였소. (800행)**

오이디푸스는 삼거리에서 라이오스 일행을 만난다. 오이디푸스는 그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참

3) 김인숙, 「서양 고전 비극에 나타난 하마르티아 연구」, 단국대학교, 2012, 2p.

4) 김한식, 「문학과 카타르시스」, 프랑스 어문 교육 제 18집, 2004, 447p.

5) 김혜경, 「토마스 하디의 작품에 나타난 비극적 운명」, 숙명여대, 2014, 33p.

지 못하고 그만 그들을 죽이는 과실을 범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인다. 이는 그의 성급한 성격덕분에 일어난 사건으로, 비극의 원인을 오이디푸스 성격으로 보고 있다.

오이디푸스: 당신에겐 힘이 없소, 당신은 귀도 ,정신도, 눈도 멀었기 때문이오. 그대는 영원히 이어지는 밤 속을 헤매고 있구려, 그러니 나든 다른 사람이든 빛을 보는 사람은 결코 해칠 수 없으리다. (370행)

오이디푸스: 파멸 속으로 꺼지지 못할까! 어서! 돌아서서 이 집에서 떠나지 못할까! (430행)

오이디푸스: 오, 부여 왕권이며, 경쟁 심한 인생에서 기술을 넘어서는 기술이여 (380행)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오만함과 자만심에 상대를 조롱한다. 테이레시아스가 해준 조언을 무시하고 그가 눈이 먼 것을 비하하며 무시하고 있다.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를 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또한 스프링크스의 저주를 푼 장본인으로써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은 그를 타락으로 몰고 갔다.

이오카스테 : 신들께 걸고 바라건대, 그대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제발 그것을 추적하지 마세요. 저는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오이디푸스: 걱정 마시오.

이오카스테: 하지만 제 말을 들으세요, 탄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이디푸스: 이 일을 확실하게 알아보지 말라는 말은 들어줄 수 없소. (1059행)

테이레시아스: 아아, 현명함이 득이 안 될 곳에서 현명하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내 그걸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잊었으니!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을!

테이레시아스: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시오.

오이디푸스: 그대는 예언도 주지 않으면서, 합당치도 않고 그대를 키워준 이 도시에 우호적이지도 않은 말을 하셨습니다.

테이레시아스: 그대의 말이 적절치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오....

오이디푸스: 오, 악인들 중 최악인 자여 사실을 이르지 않고 그렇게 뻗뻗하게 제 뜻대로만 할 터인가?(316행)

오이디푸스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 테이레시아스는 진실을 밝히길 꺼려하며 이것이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의 비극을 자초한다. 마찬가지로 이오카스테는 모든 사실을 깨닫고 오이디푸스에게 간청한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내려다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그의 집요한 성격이 그로 하여금 비극을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성격적인 결함으로 인해 비극을 맞는 경우는 인과성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카타르시스 측면에서는 확연성이 떨어진다. 카타르시스는 예기치 못 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에 의한 연민의 감정을 자아내야 하는데 악인의 처벌은 연민의 감정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처벌적 의미에서는 가장 적절한 반면에 비극의 정의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를 오이디푸스를 마냥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고 조국을 떠난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깨닫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하마르티아를 성격적 결함의 동의어로 쓰이는 정의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

는 성격적 결함을 하마르티아로 보는 것 이외에도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 3.2 운명의 힘

두 번째는 외부적인 힘으로부터 비극을 결정짓는 것인데 이 모든 상황을 총괄하는 힘이 있고 운명이라든지 신과 같은 대항할 수 없는 세계에 의해 강요되는 현실로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인생의 모든 불행은 어떤 보이지 않는 지배하는 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힘은 어떤 의식도 목적도 없는 맹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생기는데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등장인물들의 의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간 끝에 좌절시킴으로써 비극적 결말에 이르게 한다. 인간은 운명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sup>6)</sup>

크레온: 신께서는 지금 그 살해자들이 누구든 간에 손으로 그들에게 보복하라고 분명히 명하시는데

오이디푸스: 그들은 대체 어느 땅에 있소? 어디서 이 옛 범죄의 희미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단 말이오?

크레온: ‘이 땅에서’ 라고 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106행)

오이디푸스: 신께서 보내신 무서운 신탁 때문이오. (992행)

오이디푸스: 포이보스께서 내게 예언하신 게 이루어질까 두려워서요. (1011행)

오이디푸스: 아아. 모든 것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구나. 명백하게! (1184행)

오이디푸스: 아아. 나의 끔찍한 어둠의 구름이여, 나를 덮친, 표현 못할 운명이여, 극복할 수 없고 순조롭지 않은 운명이여! (1313행)

이처럼 하마르티아는 등장인물의 내면이 아닌 외부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들이 정해 놓은 운명을 깨뜨릴 수가 없다. 비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신탁이나 예언에서 규정한 것처럼 처음부터 그러한 불행에 당하게 되는 운명에 처해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누구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것은 오히려 하마르티아가 되어 그들을 불행으로 이끈다. 오이디푸스가 진실에서 멀어지려 애썼지만 결국 모든 것이 예언대로 되었다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하마르티아를 운명으로 보는 것은 어쩌면 가장 단순하게 이 비극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이디푸스 개인의 문제와는 별개로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운명이었다고 하면 비극의 원인을 애써 찾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역시 비극을 외재적 요인으로만 한정시킬 수 없다. 오이디푸스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아폴론이었소, 아폴론이오, 친구여. 나의 불행은, 불행은, 나의 고통을 완성한 것은. 하지만 눈을 직접 찌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가련한 나 자신이었소.” 그는 계속해서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운명의 탓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마지막에 위와 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 이는 신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 비극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카타르시스에 적절한 인과성을 띠고 있을 때 최상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비극의 원인을 운명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러한 면에서 확연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일 때 그러한 감정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데 신과 운명의 힘은 관객으로 하여금 거리감이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성격적 결함과는 반대로 인과성이 너무 없어도 카타르시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하마르티아를 외부의 힘의 문제만으로 보기에라도 문제가 있다.

6) 김혜경, 「토마스 하디의 작품에 나타난 비극적 운명」, 숙명여대, 2014, 8p.

### 3.3 인간의 무지

그렇다면 마지막은 오이디푸스가 비극적 결말을 얻게 된 원인을 인간의 무지로 보는 것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지식의 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오이디푸스에 나타난 비극도 결국 신과 비교해서 열등한 지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한 인간의 결말일 것이다. **오이디푸스: 내 아버지는 코린토스의 폴뤼보스이고, 어머니는 도로스의 자손 메로페요. 그리고 나는 거기 사는 시민들 중 가장 존귀한 자였소. (777행)**

**오이디푸스: 하지만 그렇다면 대체 왜 저분께서 나를 아들이라 부르셨소? (1021행)**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위와 같이 소개를 했고 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언에 따라 고향을 떠난다.

**오이디푸스: 어머니와 아버지 몰래 뿔토로 갔소. 포이보스는 내가 찾아간 용건에 대해서는 나를 무시하며 돌려보내면서 내게 다른 무섭고 불운한 것을 던져 주었소. 내가 어머니와 몸을 섞게 될 것이며, 인간들이 참고 볼 수 없는 자손을 낳게 될 것이고 내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살해하리라는 거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귀여겨듣고, 그 이후로 코린토스 땅을 피해 다녔소. 사악한 신탁이 내게 정해준 수치스러운 일이 결코 이뤄지지 않을 곳으로 말ियो. (790행)**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오이디푸스는 결국 자신의 친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한다. 이는 알지 못해서 생겨난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결론이 생긴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카타르시스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의 무지를 하마르티아로 보는 해석이 가장 정의에 부합한다. 우선 같은 인간으로써 느끼는 동질감에서 우리 자신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긴다.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오이디푸스가 이 모든 일을 단지 알지 못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비극을 당하게 된 것은 안타까움과 연민의 감정을 자아낸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술한 하마르티아와 카타르시스의 측면에 가장 부합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인간의 무지만으로 하마르티아를 나타낼 수 없다. 오이디푸스가 범한 잘못과 외부의 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4.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오이디푸스 왕에 나타나는 하마르티아를 카타르시스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하마르티아를 성격적 결함으로 보는 것은 악인의 징벌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것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운명의 힘은 인과성에서 확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가장 합당한 것은 인간의 무지로 보는 관점이며 물론 이것으로 비극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장 정의에 부합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서 오이디푸스가 지닌 결함은 성격이나 도덕성에 흠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의 무지는 그의 약점이 되어 그를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다. 진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하며 오이디푸스는 테이레시아스가 눈이 먼 것을 조롱하며 빛을 못 보는 자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 한자는 그 자신 이었다. 오이디푸스는 그의 통찰력에 한계를 느끼고 눈이 멀게 됨으로써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참고문헌〉

김인숙, 「서양 고전 비극에 나타난 하마르티아 연구」, 단국대학교, 2012.

김혜경, 「토마스 하디의 작품에 나타난 비극적 운명」, 숙명여자대학교, 2014.

김한식, 「문학과 카타르시스」, 프랑스 어문 교육 제 18집, 2004.

네이버 지식백과 하마르티아 [Hamartia]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국학자료원)

네이버 지식백과 하마르티아 [hamartia] (Basic 고교생을 위한 문학 용어사전, 2006. 11. 5)